도민체전 분산 개최

코로나 지속에 개·폐회식 없이
전북도·익산시 등과의 협의로
9월부터 두달동안 전북 일원서
종목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져

제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분산 개최된다.

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도민체전이 코로나19로 인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간 전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같은 결정은 전북도,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이뤄졌다.

당초 도민체전은 지난 5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개·폐회식 없이 분산 개최 하기로 했다.

종목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대회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당초 일반부와 학생부 경기에서 일반부에서만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며, 개최종목도 기존 38개에서 35개 종목만 열린다.

또 각 종목별 순위만 매기고, 종합순위(점수)는 없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의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으로 치르기 위함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제58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도민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분산 개최 결정이 내려졌다"며 "철저한 방역 속에 도민체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지난 8일 오후, 전라북도의회를 찾아 송지용 의장과 환담을 갖고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기 태권도 활성화 위해 함께 노력하자"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송지용 도의회 의장 예방
송 의장 "의회 차원서도 태권도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지난 8일 오후, 전북도의회를 찾아 송지용 의장과 환담을 갖고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루어진 환담에서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210개국에서 사랑받는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와 국기라는 명성에 걸맞게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기 태권도 발전에 태권도진흥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2019년 K STAY 중 참가 외국인들에게 태권도 기본자세를 지도하고 있는 모습.

태권도의 가치·한국 문화 해외에 전파

태권도진흥재단, 봉사단원 선발… 28일까지 신청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의 가치와 한국 문화를 알릴 '2021 태권도봉사단원'(이하 태권도봉사단원) 100여명을 선발한다.

태권도봉사단 지원은 9일부터 28일 아침 9시까지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이 가능한 태권도 2단(품) 이상 보유자로 태권도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가능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9일 면접시험 대상자를 발표하고 7월 1일과 2일 태권도원(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실기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 합격자는 8월 11일부터 일주일 간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지도법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개, 해외 안전 유의사항, 팀 빌딩 등 해외봉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태권도봉사단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파견할 예정으로, 파견 대상 국가는 국가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봉사단은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비롯해 태권도와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며 "파견 국가 선정 시 봉사단원들의 임무 수행 여건과 안전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봉사단 선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https://www.tpf.or.kr/tpf/main/index.do)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유죄 판결 명단 공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12월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공개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는 체육·법학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과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유죄확정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선수 인권 보호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 체계도 마련한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해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이 포함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 등 중요 사항도 협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통합체육회를 실제 명칭인 대한체육회로 개정함으로써 그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뉴시스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자 과정 3기 교육생 모집

국립등산학교, 8회 걸쳐 150시간 교육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는 '스포츠클라이밍지도자 3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포츠클라이밍 이론, 실습, 지도방법, 루트세팅 등의 전문지식 강습과 실습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등산학교는 지도자다운 역량을 갖추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에 반드시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http://www.nationalmschool.kr/)를 통해 접수 받으며, 입금 선착순으로 25명 마감한다.

교육은 7월 23일부터 매회 2박3일간 8회에 걸쳐 진행하며, 올해 수강료는 69만6천원이다.

자세한 일정 및 주의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생은 매회 입교 전 코로나19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중국 국립등산학교장은 "실내·외 암벽시설 운영자나 관리자, 강사 및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등산학교는 속초시 노학동에 소재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 서비스 및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청 사이클부, 전국대회서 '일냈다'

음성 대회서 성적 '우수'
신주영, 1㎞ 종목서 금메달
양진식, 1lap 종목 은메달
단체스프린트선 동메달 수확

전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감독 소순직)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충북 음성종합운동장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1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18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신주영 선수는 1km 종목에서 1분 03초 626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양진식 선수는 1lap(s/s)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다. 또 양진식, 신주영, 김대영 3명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 단체 스프린트에서는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주시청 사이클부는 지난 4월 열린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 각 1개씩을 차지한 바 있다.

소순직 감독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전주시민들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준 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달 말 개최되는 2021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정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주시청 사이클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전주를 빛내줘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창단한 전주시청 사이클부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돼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관리를 통해 전국대회서 고무적인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히딩크 감독 "유상철, 불굴의 투지 보여준 위대한 선수"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75·현 퀴라소 감독) 감독이 세상을 떠난 제자 유상철 전 감독의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히딩크 감독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유 전 감독의 소식을 접한 후, 8일 한 언론을 통해 "위대한 선수가 떠났다"며 "유상철은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위대한 축구 선수였고,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였다. 그를 기억하고 영원히 추억하겠다"고 전했다.

유 전 감독은 히딩크 감독 체제 국가대표팀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큰 신임을 받았다. 특히 2002년 6월4일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2-0 승리를 결정짓는 쐐기골을 터뜨렸다. 월드컵 사상 첫 승을 이끈 값진 골로 유 전 감독의 인생 장면으로 꼽힌다.

한편, 투병 끝에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유 전 감독의 장례가 9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축구인장으로 치러졌다. /뉴시스